

주거공간 내에서의 幼兒의 프라이버시 욕구 Pre-school Children's Privacy Needs in the Residential Space

이인수*
Lee, In-Soo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review pre-school children's needs for privacy within normal residential space. In this study, there were three circumstances in which children need to stay alone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their parents; First, they strongly want to be stay quiet until relieving their anger or fear, shortly after disciplined and impugned by their parents. Second, infant children need to obtain their own territory in order to demonstrate ownership and dignity in their sley space. Third, there are also special circumstances of privacy needs among families with intrusive parents such as alcoholics and heavy smokers, or for the children of disability. In Korea, it is presumed that more than 60 percent the pre-school children aging three to six are in deficit of privacy for relieving their emotional disturbance, but no research has been documented for the case of disabled or interrupted children.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primarily proposed that empirical studies need to be performed among Korean preschoolers, in order to evaluate privacy needs in the perspectives of ordinary family lives, individual household behaviors, and special conditions of disability or offensive family members.

Keywords : Dignity, Territory, Privacy Needs, Space, Pre-school Children

주요어 : 존엄성, 영역, 사생활 욕구, 공간, 유아(幼兒)

I. 서론: 연구의 당위성과 목적

1. 주거공간내 유아기 프라이버시의 意義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거공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거공간이란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주로 집안에 있는 방, 부엌, 거실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공간은 자연의 압력으로부터 가족들의 신체를 보호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가족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화와 정서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공간이기도 하다(Bachelard, 1985; Oliver, 1985).

인간은 주거공간에서 습득한 여러 가지 人性(personality)을 통해 사회속에서의 역할과 존엄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주거공간에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습득되는 인성은 幼年시절부터 점진적으로 형

성되어 평생동안 정서와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준현, 2000; Sebba and Churchman, 1983). 인간발달 측면에서 볼 때 7세 이후 학령기(學齡期)에는 학교생활과 왕성한 옥외 교우활동을 위해,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 사람들은 목표 성취와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해 주거공간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그 이전 시기인 유아기(preschool period)는 독립적인 이동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루일과 대부분 시간을 가족의 보호아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생활 특성에 의해 정서와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정준현, 2000). 특히 유아기에는 주거공간에서 느낀 유쾌함, 불쾌함, 혹은 특별한 장소에서의 특별한 사건과 같은 현상적 경험이 매우 강하게 정서화된 기억으로 남아 평생의 태도와 가치관을 지배하기에(문은미, 2000; 정준현, 2000), 주거생활과 관련된 아동기 인성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주거공간의 사회·심리적 기능을 연구하는 초보적 과제라 하겠다.

*정회원: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미국 연구를 고찰해 볼 때, 아동기에 주거공간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습득하는 사회·심리적 특성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요인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인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볼 수 있다(Sebba and Churchman, 1983). 프라이버시는 ① 자신이 다른 인간과 구별되는 고귀한 존재(Existence of Dignity)라는 인식이고(Althen, 1988), ② 타인의 존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혼자 있음을 선호하는 상태이며(Wolfe, 1978), ③ 원하지 않는 시정각 작용으로부터(예: 소음, 미관이 나쁜 사물)의 회피이다(신용재, 2001). 이러한 기본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주거학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지배하는 일정량의 물리적 공간(physical space)을 확보하여 그곳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정서상태(Cook, Brotherson, Weigel-Garrey, & Mize, 1996)를 의미한다. 즉, 주거학에서 프라이버시란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서 안정된 정서를 유지한 상태로서, 물리적·정서적 영역에서의 균형을 모두 충족시킨 상태라고 하겠다.

유아기 아동은 주거공간 내에서 프라이버시 충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우선 이 시기에는 주거공간 내에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훈련을 함으로써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타인과의 상호접촉을 원만하게 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학습하게 되고(Moore, 1990), 독립심과 책임감을 발전시키게 된다(Hanson, 1992). 유아기에는 부모와 형제로부터 일정 수준의 물리적·정서적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아야만 그 충족된 프라이버시 상태에서 자신만의 독립적인 창조적 경험을 하며, 아울러 다른 형제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공간과 정서를 인정하게 된다(David & Weinstein, 1987). 따라서 유아기에 주거공간에서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 유지에 대한 학습을 하지 못하여 그 개념조차 희박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학교, 직장,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원만한 상호접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고유성을 관리하는 독립심과 책임감이 결여된 정서를 지니게 될 것이다.

유아기에 있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는 가족 수, 연령, 성, 생활문화 등 가족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그 정도가 정해진다(Laufer & Wolfe, 1977). 예를 들어

유아기 아동은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성의 부모(예: 남자아이와 모친)와의 친밀 행동시 가장 적은 양의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 반면, 중류층 사회의 규범적 생활(예: 식탁에서의 식사, 응접실에서의 격식을 갖춘 대화)로부터는 더욱 멀어지려는 습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하루 일과 대부분을 집에서 모친과 함께 생활하는 남자아이 경우 프라이버시 욕구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대가족에서 살거나 친인척 방문이 잦은 집에 사는 아동은 혼자만의 공간에서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주거학 측면에서 볼 때, 유아기 아동에 있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는 공간규모와 가족 수,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양식의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는 물리적·정서적 영역의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

국내의 연구를 고찰해 볼 때 유아기에 주거공간에서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활동에는 학습, 놀이, 휴식, 취침(민병호, 1998; 이규목, 1998; 이진환 외, 1997; 임미숙, 1996), 가족과의 공유 활동(이영숙, 2000; 정준현, 2000; 박현아·박용환, 2001), 물리적 환경과 아동 인성과의 상호작용(황연숙·이연숙, 2003), 주거가치 및 규범과 행동 습득(양세화·오찬옥, 2003), 그리고 프라이버시 인식(황연숙·이연숙, 2003; Althen, 1988; Morris & Winter, 1978)등 매우 다양한 영역이 있다.

위에 언급한 다양한 활동중 국내 연구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부분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유아기에는 주거공간 내에서 충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주거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① 면적, 채광, 공간구성 등 물리적 환경이 학습, 놀이, 취침 등 일상생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한 것들(민병호, 1998; 이규목, 1998; 이진환 외, 1997; 임미숙, 1996), ② 아동의 방 크기는 줄이더라도 거실을 넓게 하여 가족전체가 공유하는 생활을 더욱 중요시하는 『가족중심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양세화·오찬옥, 2003), 그리고 ③ 주거공간의 편리성과 공간규모 등 물리적 환경이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애착, 자아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것이다(황연숙·이연숙, 2003).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선진국 수준의 프라이버시 인식에 필요한 영역과는 거리가 멀고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그 기본 개념만을 고찰했을 뿐, 아동이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연구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주거학에서 유아기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한국의 주거문화가 갖는 전통적 정서를 들 수 있다. 한국인의 주거공간 이용습관을 지배하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은 고밀도 소규모 공간에서의 ①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② 상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규범이었다(김태현, 2000; 정준현, 2000). 최근 20대 연령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구 선진국의 절반규모도 안되는 좁은 공간에서 「안방」과 「대청마루」 등 전통 주거에서의 주요공간은 어른의 전용공간이었으며, 이러한 공간은 유년시절에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고 그 주어진 프라이버시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학습시키기보다는, 전통적인 가족질서(예: 힘있는,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정서)를 주로 인식시키는 장소가 되어왔다. 한편 보다 현대적 개념의 주거공간인 개인방, 현관, 베란다, 다용도실 역시 윤패성(예: 유년시절 그곳에서 경험한 즐거운, 희망적인, 만족스런, 사랑스런 정서)이나 쾌적성(예: 유년시절 그곳에서 경험한 시원한, 바람직한, 친근한 정서)를 인식시키는 장소였으며 자신만의 독립된 가치인 프라이버시를 인식한 곳은 아니었다(정준현, 2000).

이렇듯, 이제까지는 주거학에 있어 유아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출산기피 현상과 더불어 많은 자녀를 무분별하게 양육하는 것보다는 한두명 자녀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적 취향과 독창성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고조되면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유아의 자신감과 프라이버시 향상에 대한 인식도 아울러 증대되고 있다(미디어다음, 2003).

과거에는 대가족 주거공간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이 크게 위축되어온 주거문화가 유교적 관점에서는 미덕일지 모르나, 이제는 집안에 한두명 자녀만 사는 서구식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21세기를 맞이하여, 아동에게도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선진국 수준의 인간적 삶의 질이 제공되어

야할 시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선진국에 한국 유학생 30만 명이상이 장기체류하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들 나라로 여행하며 활발한 서구문화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문화방송, 2002), 한국도 이제는 서구선진국 수준의 주거생활이 보편 타당한 주거문화로 유입되는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주거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서, 유아기에는 주거공간 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보다 구체화된 연구과제 및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이 주거공간 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선진국 문헌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한국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보다 구체화된 연구과제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 아동이란 취학 전 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의미하며 프라이버시는 Cook, Brotherson, Weigel-Garrey, & Mize(1996)가 제시한 두 가지 영역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상태를 의미한다. 즉, ① 다른 가족구성원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만의 공간(물리적 영역)을 확보하고 ② 그러한 공간에서 안정과 평화를 느끼는 심리상태(정서적 영역) 모두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정의에 입각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이 주거공간 내에서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지를 ① 가족관계, ② 일상생활, 그리고 ③ 특수 사례 측면으로 구분하여 미국문헌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유아기 아동에게 선진국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미래 연구과제 및 정책적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가족관계 측면

1. 부모에 대한 일시적 분노

유아기 아동이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우선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후 그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Poughkeepsie Day School, 2001), 아동은 4-5세 될 무렵부터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은 직후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아무도 없는 장소에 잠시 혼자 있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겨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 욕구는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더욱 강하게 표현한다. 예를 들면 빈방에 들어가면서 혼자 있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문을 세계 닫는 거친 행동을 하는 것을 조사에 응한 여성들 반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꾸중하거나 때리고 나면 딸은 거실 구석(living room corner)에 돌아서서 울지만, 아들은 빈방으로 달려 들어가 문을 세계 닫으며(slam the door) 혼자 있고 싶다고(leave me alone) 소리 지르는 경우를 자주 겪는다 - (p21 학부모 기고문 요약번역)

이 조사연구에 의하면, 아동발달 측면에서 볼 때 유아기 아동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필요로 하는 프라이버시는 몇 분 이내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라이버시 공간이 없을 경우(예: one-bedroom 아파트) 아동의 정서관리에 큰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년기 아동은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에서 생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혼자 있을 공간이 꼭 필요하며, 이러한 공간이 없을 경우, 아동의 정서안정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아이가 부모한테 심하게 꾸중듣고 나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혼자 있으려고 방문을 세계 닫고 들어 갔다가도, 몇 분 후 방문을 두드리면 다시 나오기에, 그 시간(아동의 프라이버시)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

지만 문제는 방 한 개만 있는 아파트에 살 경우, 그런 몇 분간의 프라이버시를 허락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에서 남편이 잠을 자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 (p22 학부모 기고문 요약번역)

2. 부모의 프라이버시

처음부터 아동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자기 프라이버시를 위해 아동의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아동에게 혼자 있어야 할 프라이버시 공간이 필요해지는 사례도 고찰되고 있다. 유아기 아동을 둔 젊은 부부의 경우, 자녀의 접근을 막고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누릴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이런 성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욱 강하다. 특히 직장에서 퇴근한 직후 ① 직장관련 서류를 정리하거나 ② 아내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③ 애정표현을 하기 위해 혼자 있을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성향이 강하다(Parke & Swin, 1979). 한편 아내의 프라이버시(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을 할 때)를 위해 아동에게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필요성 때문에 아동에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필요란, 처음에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아동이 나중에 느끼게 되는 프라이버시 욕구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원하는 프라이버시라기보다 부모가 설득하고 권유하여 느껴지는 프라이버시기에, 방이 아니더라도 놀이도구나 TV가 있는 거실공간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Moore, 1990). 그러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아동이 강하게 원한 공간에 비해 훨씬 긴 시간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3. 나이 많은 형제자매에 대한 거부감

유아기 아동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청소년 형제자매와 살 때 그 형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한다. 인간발달 측면에서 볼 때 14세 이후 청소년기부터는 자신의 소유물을 은밀한 곳에 감추고 싶어하며(예: 속옷, 귀쭙뿔, 편지) 놀이공간을 차지하는 아동의 접근을 거부하는 성향이 증가한다(Sebba and Churchman, 1983; Hanson, 1992). 특히 이 시기에는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물 어린 형제자매에게 보이기 싫어하여 아동의 접근을 막

는다. 반면, 타인 소유물에 대한 존중심은 감소하고 이기심이 크게 증가하여 유아기 아동의 소유물(예: 놀이기구, 옷)을 함부로 버리거나 던지는 기질적 특성이 커지게 된다(Laufer & Wolfe, 1977). 그러므로 유아기 아동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형제와 같은 침실을 사용하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유아기 아동이 나이 많은 형제자매와 함께 살 경우 그 형제로부터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별도의 침실을 필요로 한다. 나이 차가 많은 형제자매간의 프라이버시 갈등은 다른 성별끼리(cross-sexual)나 같은 성별끼리나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난다. 예를 들어 아들끼리만 있을 경우는 나이 차가 많은 형제끼리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데 따른 프라이버시 갈등이 비교적 적다. 반면, 나이 많은 아들과 유아기 여아와의 같은 침실 사용은 근친간 성적인 접촉우려로 인해 미국의 사회규범상 금지된다(Moore, 1990). 또한 10대 후반 청소년기에 있어 여자는 남자보다 프라이버시 욕구가 더욱 크기 때문에(Parke & Sawin, 1979), 10대 후반 여자 청소년은 남다른 여아든 유아기 아동과 함께 침실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한다. 또한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유아기 아동이 비혈연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 경우 나이 차 많은 비혈연 형제자매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진다(Wolfe, 1978).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년기 아동은 비슷한 나이의 형제자매와는 같은 침실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차이가 7-8세 이상 나는 청소년기 자녀와는 발달 심리적 차이로 인해 함께 지낼 수 없어 별도의 방을 필요로 한다. 또한 나이 많은 남자와 유아기 여아의 경우, 나이 많은 여자와 유아기 남아·여아의 경우, 그리고 비혈연 관계일 경우 어떠한 성별끼리의 합방이라도 나이 차 많은 형제자매간 개별적 프라이버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III. 일상생활 측면

1. 문을 잠그고 싶어하는 행동

주거공간 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유아기 아동에게 프라이버시 필요성이 발생하는 상황은, 우선 개개 아동이 주거공간의 문을 잠그는 행동을 시

작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아동의 경우대개 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5~6세 때부터 자신만의 공간과 소유물을 인식하고 과시하려는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 시기 아동은, 부모들이 침실과 옷장 문을 잠그며 아동의 접근을 막는 것에 대한 반발심에서, 자신들도 무엇인가 남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자신만의 영역에서 하고 싶은 놀이를 하려는 욕구가 발생한다(Eisenberg, Murkoff, & Hathaway, 1994). 이러한 욕구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가지면서 원하는 놀이를 하게 된다. 이때 부모가 잠겨진 방안에서의 아이의 안전이 우려되어 방문을 강제로 열면, 아이는 문을 잠그고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한다는 강한 욕구로 인해 화장실이나 불박이 옷장등 아무 곳으로나 닥치는 대로 다시 들어가 또다시 문을 잠그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고찰된다. 정리하자면,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가기 직전인 5~6세 때에는 특별한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이유보다는, 자신이 표시해 놓은(문을 잠근) 자신의 공간에서 부모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놀이를 하며 프라이버시를 누리려는 강한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 다 커서 학교 가기 직전 5-6세 때 이런 행동이 나온다. 문을 잠그고 다른 식구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려고 든다. 식사를 하다가 햄버거를 들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도 하고 장난감을 들고 옷장에 들어가 문을 잠그기도 한다. 자신만의 영역에서 혼자 있는 상태(Solitude)와 자유를 누리려 함이다. (Eisenberg, Murkoff, & Hathaway, 1994 p63-86 발췌 번역)

2. 화장실 사용

미국의 고전적인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아동은 남녀가 공통적으로 3세 때부터 신체 性的인 부위의 노출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놀라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각은 곧 화장실 사용에 있어 성별간 교차적인(cross-sexual) 프라이버시 필요성을 발생시킨다(Laufer & Wolfe, 1977; Wolfe, 1978). 3세가 되면 여아는 목욕을 하거나 용변을 볼 때 모친의 접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부친이 접근하면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여아는 부친이 샤워할 때 그 옆에서 용변을 보려 하지 않으며, 남매가 함께 샤워하면 서로 상대방 이성(異性)의 성기를 바라보며 호기심을 표현하여 부모를 당황하게 한다. 남자아이의 경우 어떠한 성의 가족에게도 화장실내 공동 사용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성(異性) 성기에 대한(예: 남매, 모친) 호기심을 과도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여, 서로가 화장실을 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Day School, 1997). 미국의 주거공간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기준에서 본다면, 3세 이상 남매와 부모가 생활하는 집은 남편의 출근과 자녀의 유치원등교 준비로 화장실 이용이 집중되는 경우를 위해 또 다른 화장실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3세 이상의 남매와 부모가 한집에서 살 경우, ① 자녀가 이성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프라이버시 필요를 스스로 느끼거나, 혹은 ② 이성 성기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표현하는 행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화장실 공간을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아동의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4-5세 아동이 부모와 함께 이성의 공중목욕탕에 함께 가는 한국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유아의 성징(性徵) 발달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미래에는 한국에서도 주거공간 내 여아와 성인남자와의 나체적인 접촉을 회피할 별도의 공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딸은 엄마와의 나체접촉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보이지만, 아빠가 샤워하는 동안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남자아이와 함께 목욕을 하는 것도 몹시 수줍어한다. 아들은 어머니 여아와 나체로 함께 있는 상황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환호성을 지르거나 만지려하며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한다 -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Day School, 1997 p 6-8 발췌번역)

3. 타인의 회피

한국은 도시지역의 가구밀도를 보면 주택용 토지 1ha당 92가구 이상이 분포하여 면적 당 가구밀도가 미국의 2배 이상이다(한상훈, 1998). 국토전체 인구밀도도 미국의 12배 이상이며(최성재, 1994), 조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 가구가 전체가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따라서 이웃과

의 접촉, 조부모 친구나 친척 등의 빈번한 방문이 불가피한 일상생활이기에, 외부인 방문이 유아기 아동의 주거생활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는 실정이다.

반면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거공간 내 일상생활에 있어 외부인이 집을 방문할 때 유아기 아동에게 또 다른 프라이버시 필요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인은 생활습관상 누군가를 만날 때 껴안거나 키스를 하는데, 4세 이하 아동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방문자나 외관상 친근감이 안가는 사람이 키스나 포옹을 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부터 멀어져 있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Dowrick, 1991; McKinney, 1998). 방문자가 낮설어하는 아동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며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면(예: 선물을 주거나 과자를 줌) 아동은 곧 거부감이 사라지지만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방문자 경우, 아동에게는 그로부터 멀어져 있고 싶은 욕구가 지속된다. 특히 주거공간이 영업장소로도 이용되는 소규모 가족기업(home business)의 경우(예: 부동산 상담, notary public, 가족치료사) 낯선 사람들이 방문하면 4세 이하의 아동은 방문자로부터 분리되어서 놀이를 할 별도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명의 방문자가 침실과 거실에 모여 있을 때 아동은 현관(porch), 베란다, 차고(garage)등에서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간에도 놀이공간이 배려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 3-4세까지는 인자한 인상(warmful appearance)을 주지 않는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처음에는 대개 두려움을 표시한다. 심지어는 외할머니가 방문해서 껴안으려 해도 도망가려하기 때문에 설득해야한다. 분위기를 예측할 수 없는 방문자가 항상 기대되는 가족기업(home business)의 경우 아동은 가급적 방문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베란다나 발코니, 현관, 심지어는 차고 등에 놀이공간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 (McKinney, 1998 p90-95 발췌번역).

IV. 특수사례

대리부모 가정, 습관성 물질 중독 가정, 장애아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프라이버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대리부모 가정에 있는 아동에게도 주기적으로 주거공간

의 프라이버시 필요가 발생한다. 유아기 아동에게 기본적인 양육제공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동학대』 가정의 아동은 즉시 임시보호 가정(foster care home)에 넘겨져 대리부모(foster parents)가 관리하게 된다(Waters, 1998). 이러한 보호가정은 일반 주택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지만 한 명의 대리부모가 4~5명 아동을 돌보기에, 서로 모르는 대리부모 및 보육교사 밑에서 친숙하지 않은 아동들과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대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손상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방문하여 면담하기에 일반가정에서 누리는 광범위한 영역의 프라이버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즉, 혼자만의 놀이 공간, 화장실 사용에서의 프라이버시, 낯선 사람의 방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프라이버시 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중 알코올이나 마약 등 유해물질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역시 아동은 주거공간 내에서 프라이버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알코올이나 마약을 습관적으로 탐닉하는 사람은 주거공간 내 가족 생활에 있어 ① 식사나 취침의 장소와 시간이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해지며, ② 아동에게 긴장과 불안을 조성한다(William and Joseph, 1993). 그 결과 거실이나 주방에서 오랫동안 문제의 부모가 취침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아동은 자신만의 침실이나 놀이공간에서 문을 잠그거나 혹은 다른 가족이 문제가족 출입을 제지하는 상태에서 프라이버시 필요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 역시 특별한 이유로 인해 주거공간 내에서 프라이버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를 가진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의 근거리 관찰과 보호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있을 프라이버시 기회가 매우 적으며 화장실 사용 역시 대부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다(Davis & Wehmeyer, 1991). 통계에 의하면 7세 이전 아동의 50%는 단 한번도 화장실을 혼자 사용한 적이 없으며 18%는 화장실 사용시 몇 초 동안만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igel-Garney et al., 1998). 그렇다면 장애아동은 주거학 개념에서의 프라이버시, 즉 타인의 존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혼자 있으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식하는 상태에 있을 기회가 매우 희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도 주거공간 내에서 보호자의 관찰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하에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함이 주장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이 혼자 있으면서 프라이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자신만의 놀이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공간에는 가급적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고 놀이는 물론 자신만의 의지력으로 재환노력도 함께해보며 자신의 고귀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 자기만의 공간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전등과 스테레오 스위치를 켜거나 끄고 방문을 열거나 닫으며 원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자신의 능력과 고귀함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질 곳은 오직 집(home) 밖에는 없다 - (Davis & Wehmeyer, 1991 p2 요약번역)

둘째, 장애아동에게 프라이버시 공간이 주어졌지만 그 공간에서 필요한 도구(예: 전기기구, 놀이기구)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넘어질 경우, 프라이버시보다는 좌절과 분노를 더욱 경험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프라이버시 공간은 창문과 방문에 소리가 통하는 구멍을 만들고 아동에게 경보음 벨을 달아주어 즉시 보호자가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 장애를 가진 아동을 혼자 있게 하는 것은 불안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원할 때에는 자기 방에 혼자 있도록 한다. 하지만 창문과 방문에 구멍(crank)을 내고 경보장치를 달아준다. 그리고 부모는 멀지 않은 곳에서 항상 주의를 하고 있다가 즉시 달려갈 준비를 한다 - (Weigel-Garney et al. 1998 p55 요약번역)

셋째, 장애정도가 심해 닫혀진 방안에 혼자 있는 프라이버시를 누리지 못할 경우, 큰 유리창 문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조용한 상태에서 창 밖을 내다보며 다양한 시각적 자극(visual stimulation)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거실 내 베란다 창문 앞에 휠체어가 서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한다. 그리고 가급적 가구나 소파를 그 공간 주변에서 멀리하여, 장애아동이 부모가 바라보는 가까운 거

리에서 창 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부모가 항상 곁에서 지켜주어야 하는(constant supervision) 아동에게도 프라이버시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런 아이에게는 커다란 베란다 창문 앞에 그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파란 방(blue room)이라는 애칭을 불러 주어 그의 프라이버시 공간임을 인식시킨다. 움직이기 힘든 아동이지만 그곳에 앉아 바깥구경을 하고 밤하늘도 바라보고 음악도 들으며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 (Weigel-Garney et al. 1998 p53-54 요약번역)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이 주거공간 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미국 문헌을 고찰해 보았으며, 고찰된 내용을 근거로, 한국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미래 연구과제 및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①가족관계, ②일상생활, ③특수상황 영역에 걸쳐 프라이버시 필요가 제기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한국 성장기 아동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정준현, 2000), 한국아동은 주거공간에 대해 유쾌하거나 행복한 정서 외에도 경우에 따라 지배적이며 통제적인 느낌을 갖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지배적이며 통제적인 정서는, 주거공간을 안방이나 조부모방 등 어른위주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을 중요시하고(정준현, 2000) 아동실은 현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아동실이 잘 보이고 출입소음에 노출되는 예(황연숙·이연숙, 2003)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한국에서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필요성이 미국처럼 구체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지만, 주거공간 내에서 두려움과 통제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아동만의 프라이버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일반적 주거공간 내에서 프라이버시 필요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필요가 제기되

는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하며, 주거공간 내 구체적인 상황별로 유아기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공간 내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게 우려되는 취약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하여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흡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유쾌한 상태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중 45%가 손자녀와 동거하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노인들 중 50% 이상은 하루 일과시간 대부분을 집에서 TV시청이나 바둑·장기, 흡연 등으로 소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고령의 노인과 청소년·아동이 같은 주거공간 내에서 장시간 함께 있을 경우 노인의 신체적 노쇠현상이나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는 아동의 생활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회피 경향을 가중시킬 수 있다(임정순, 1971). 또한 유아기 아동 부모의 주요 연령층인 30~39세 남자 중 73%가 흡연자임을 미루어볼 때(보건복지부, 1998), 부모가 흡연자인 아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 혼자만의 프라이버시를 누릴 기회가 아주 제한된 위험집단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고령의 신체허약 노인이나 흡연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이야말로 프라이버시 욕구가 거의 충족되지 못하는 고위험 집단이며 그 수적 규모 역시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내방조사 혹은 부모와의 면담 등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조사에서 프라이버시 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위험집단을 구분해 내서 보다 구체적인 주거서비스 제공프로그램을 개발해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어린이 교실에, 다가구 주택에 세들어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고령노인이나 흡연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들이 소규모로 프라이버시를 누리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재혼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내에서 유아기 아동의 프라이버시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제도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전체 가구의 11.4%가 재혼가정(조선일보, 2002)이다. 재혼가정은 혈연관계가 없는 형제자매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고 친숙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유아기 아동에게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① 가족관계 측면(나이 차가 많은 형제자매에 대한 거부감)과 ② 일상생활 측면(타인으로부터의 회피)이 동시에 작용하여 아동에게 2중으로 프라이버시 필요성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정도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차이가 많고 혈연관계가 없는 형제자매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 차이나 거리감을 고려해 볼 때, 재혼가정의 주거공간 사용에 있어 유아기 아동의 프라이버시 필요가 증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회과와 여성과에서는 재혼가정의 호적신청을 받을 때 새로 결합하는 가정의 유아에게 나이차이가 많은 형제자매로부터 독립된 별도 놀이공간이나 방을 제공하도록 제도하는 상담이 제공되도록 한다. 혹은 복지관에 재혼부부를 위한 교양강좌에 아동프라이버시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을 권장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체장애 아동 가정에도 프라이버시 공간이 마련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기 아동 중 장애비율은 약 2.3%이다(이소희 외, 2000). 물론 미국과 한국의 정도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아동에게도 주거공간 내에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개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주택개발사업 지원사업에 장애 아동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간(예: 비상벨이 달린 침실, 베란다 앞 놀이공간 등) 증·개축 비용 무상지원이 첨가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거공간 내 아동의 프라이버시 개념」이 아동보호 정책의 기본 범주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아동보호정책의 주요 지원방향은 예방접종, 학대방지, 결손가정 생활보호 등에 집중되고 있다(한국가족복지학회, 2001). 하지만 주거공간 내 프라이버시 역시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단계라는 인식 하에, 아동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한 지침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유아기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가급적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소형 간이 화장실(예: 변기와 샤워기만 있는)을 추가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주택디자인 안내가 제작되어 범국민 홍보용 자료로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을 데리고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가는(예: 여아를 데리고 남탕에 가거나 남아를 데리고 여탕에 가는 경우) 행동이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경고문을 목욕탕에 부착하도록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아동보호 정책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끝으로 유아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함에 있어 미국사례를 맹목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한국의 주거공간 제한점을 반영하는 절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1년 동안 한국에 새로 건설된 家口는 약 67만 戶이며 그중 단독주택은 7.9%에 불과하고 92.1%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세대 거주 건물인 바(통계청, 2004), 이렇듯 최근 공급되는 가구중 다세대 가구의 압도적인 비율은 미국의 47%(미국부동산협회, 2004)와 비교해 볼 때 두배 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유아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대부분은 공동벽을 사용하는 이웃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다세대 주거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타인회피 프라이버시 공간을 맹목적으로 미국기준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한국형 고층 아파트나 연립주택 구조속에서 이웃과의 공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절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접촉복도형 아파트 경우, 타인을 회피하여 혼자 있어야 할 프라이버시 욕구가 강한 유아나 재활치료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유아가 있는 가정에게 옥외 다용도 공간이 있는 복도끝 家口 입주 우선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 경우 공동벽 사용이 비교적 적은 1층, 혹은 매 층 건물 양쪽 끝부분 입주 역시 재활치료나 놀이공간이 필요한 유아 가정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하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권오정(1997) 노인단독 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

- 국노년학회지, 17(1), 1-18.
2. 김태현(2000) 노년학, 교문사.
 3. 김해경(1997) “청소년의 노인애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4. 문은미(2000) 유년기 회상기록을 통한 아동의 놀이 장소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5), 27-32.
 5. 문화방송(2002) 현장주적 재의 한국인 실태에 관한 보도 자료, 2002.1.18, www.mbc.co.kr.
 6. 미국부동산협회(2004) 인터넷 홈페이지 <http://dir.real-estate.yahoo.com/American Association of Real-Estate> 자료실 최근 부동산 정보 발체.
 7. 미디어다음(2003) 인터넷홈페이지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ent/art/뉴스자료실<아동의 프라이버시 자료실 > 검색>.
 8. 민병호(1998) 과거 주거지의 외부공간 특성과 아동의 놀이행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4), 35-44.
 9. 박현아·박용환(2001) 자녀의 성장과정애 따른 주거 공간 사용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4), 43-52.
 10.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11. 보건복지부(1998)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보.
 12. 보건복지부(1998) 노인복지사업 지침, 171.
 1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91) 한국영아의 사망률 추정 및 사망구조분석.
 14. 신귀연(1995)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 석사논문.
 15. 신용재(2001) Cohousing에서 추구하는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1), 45-56.
 16.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17. 양세화·오찬옥(2003) 초등교육기 이하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가치 및 규범과 행동, 한국 주거학회지, 14(2), 31-40.
 18. 원영희(1995) 동·별거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5(2), 97-116.
 19. 이규목(1998)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방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 35-45.
 20. 이소희 외(2000)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21. 이영숙(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3), 1-16.
 22. 이진환외(1997) 환경심리학, 학지사.
 23. 임미숙(1996) 주거유형에 따른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 임장순(1971) 노인애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5. 정준현(2000) 유년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영향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1(4), 43-51.
 26. 조선일보(2002) 재혼가정 실태에 관한 여성개발원 연구 발표자료 발체기사, 2002.1. 29일자, 43면.
 27. 최윤정·김민정(2003)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4(6), 23-32.
 28. 통계청(2004)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so.go.kr>중 건설분야 통계자료 발체.
 29. 한국가족복지학회(2001) 「새천년 위기가정 극복을 위한 과제」, 주제 학술대회 자료집.
 30.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 노인복지정책 연구, Series 97-03.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 과제.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보건복지포럼 제18호 p7-17.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전국 출산력 조사.
 35. 한상훈(1998) 공동주택단지 건설에 있어서 주거환경과 가구밀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2), 33-41.
 36. 황연숙·이연숙(2003) 아동실의 물리적인 환경이 아동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4(2), 51-61.
 37. 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for the Aging(2000) Annual Report. Retirement Housing Series.
 38. Althen, G.(1988), American Ways: A Guide for Foreigners in the United States, Yarmouth, ME: International Press.
 39. Bachelard, G.(1985) 「La poetique de l'espace」, 가스통 바슐라르(박광수 역) 「공간의 미학」, 서울: 민음사, 1990.
 40. Carolwoods Retirement Community(2004) 인터넷 홈페이지 <http://carolwoods.org> 노인-유아 공동활동 프로그램 발체 검색.
 41. Carstensen, L., Mason, S.E., & Caldwell, E.C.(1982)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 Intergenerational Technique for Change, Educational Gerontology, 8, 291-301.
 42. Caspi, A.(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n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A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47-80.
 43. Cook, C., Brotherson, M., Weigel-Garrey, C., & Mize, I. (1996) Homes to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Children. In D.J. Sands & M.L. Wehmeyer(Eds.),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Life Span: Independence and Cho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ltimore: Brooks.
 44. David, T. & Weinstein, C.(1987) The Built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C.S. Weinstein & T.G. Davis(Eds.), Spaces for Children. New York: Plenum.
 45. Davis, S. & Wehmeyer, M.(1991) Ten Steps to Independence: Promoting Self-determination in the Home, Self-determination [Brochure], Arlington, TX: Author.
 46. Dowrick, S.(1991) Intimacy and Solitude: Balancing Closeness and Independence, New York: Norton.
 47. Eisenberg, A., Murkoff, H., & Hathaway, S.(1994) What to Expect in the Toddler Years, New York: Workman.
 48. Hanson, M.(1992) Families with Anglo-European Root, In E.W. Lynch & M.J. Hanson(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altimore: Brooks.
 49. Lauffer, R.. & Wolfe, M.(1977) Privacy as a Concept and a Social Issue, Journal of Social Issue, 33, 22-42.
 50. McKinney, K.(1998) Space, Body, and Mind, Journal of Family Issues, 19(1), 75-100.
 51. Moore, R.C.(1990) Childhood's Domain: Play and Place in Child Development, Berkeley, CA: MIG Communications.
 52. Morris, E.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Wiley.
 53.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Day School(1997) What is Children's Privacy?, in Script Bookelt Series #1, South Deerfield, MA: Channing Bete Co, Inc.
 54. Oliver, P.(1985) The Dwellings, University of Texas Press.
 55. Oljenik, M.G. & LaRue, C.A.(1981)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Esteem. Princeton Univ. Press.

56. Parke, R.D., & Sawin, D.B.(1979) Children's Privacy in the Home, *Developmental, Ecological, and Child-rearing Determinants, Environment and Behavior*, 11(1), 87-104.
57. Poughkeepsie Day School(2001) *News & Bulletin for Kindergarten Parents*, Summer, Poukeepsie, N.Y. U.S.A.
58. Schwartz, L.K. & Simmons, J.P.(2001) Contact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7(2), 127-137.
59. Sebba, R. & Churchman, A.(1983) Territories and Territoriality in the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 15(2), 191-210.
60. Ward, C.R., Duquin, M.E., & Streetman, H.(1999)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massage on future caregivers: Attitudes toward aging, the elderly, and caring for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5(3), 35-46.
61. Waters, R.(1998) *Kids, the Law, and You: Understanding and Using the Legal System to Protect Our Children*, Self-Counsel Press Inc: Washington, D.C.
62. Weigel-Garney *et al.*(1998) Children and Privacy, *Journal of Family Issues*, 19(1), 43-64. William, K. & Joseph, J.(1993) *Social Problem* (8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63. Wolfe, M.(1978) Childhood and Privacy, In I. Altman & J.F. Wohlwill(Eds.),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Plenum.

(接受: 2003. 9. 8)